

# 淸道 陳羅里遺蹟 發掘調查

박 달 석(영남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淸道郡은 경상북도 일원에서도 비교적 文化遺蹟의 調查가 미흡한 지역으로 주변의 대구나 경산, 밀양, 경주에 비해 고고학적 발굴조사는 아직까지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지역 최초의 조사는 1978년에 각남면 화리에서 농업 용수용 파이프를 묻으려고 掘地작업을 하던 중에 석 관묘가 발견되어 청동기시대 석관묘 2기가 조사되었다(金英夏 1980). 매전면 예전리에서 발견된 요령식동검은 모두 2점으로 1점은 1980년 계명대학교박물관에서 골동상을 통하여 구입하였고, 1점이 경주박물관에 매장문화재로 신고되었다(金鍾徹 1987). 1989년에는 청도읍 사촌리에서 무문토기와 마제석기류가 널려있는 산포지를 지표조사에서 발견하여 경주박물관에서 발굴조사 하였다(金相冕 1990). 1991년에는 운문댐 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에 대한 합동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신석기시대 암음유적을 비롯하여 청동기시대의 입석묘, 지석묘, 주거지 등이 조사되었다(釜山大學校博物館 1994,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大田保健專門大學校博物館 1994, 大邱教育大學校博物館 1994, 慶南大學校博物館 1994). 이후 이렇다할 발굴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근래 들어서서 고속도로를 비롯한 각종 건설공사에 의해 다수의 고고학적 조사가 이루어졌다(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a). 이번에 조사된 진라리유적의 경우도 대구-부산간고속도로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대구-부산간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실시된 사전 지표조사결과(嶺南大學校博物館 1993)를 통해 알려지게 되면서 발굴조사 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은 약 6,000평에 해당하며, 발굴조사는 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2002년 7월 29일부터 2003년 5월 26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소하천들이 합류하는 협곡평야의 중앙부에 조성된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마을유적이 밝혀지게 되었다. 조사된 유구는 靑銅器時代의 豎穴住居址 93棟, 高床式建物址 3棟, 支石墓 5基, 支石墓 上石 4基, 豎穴遺構 23基, 野外爐址 5基, 溝狀遺構 3基 등 총 136기이다.

## Ⅱ. 유적의 입지와 고고학적인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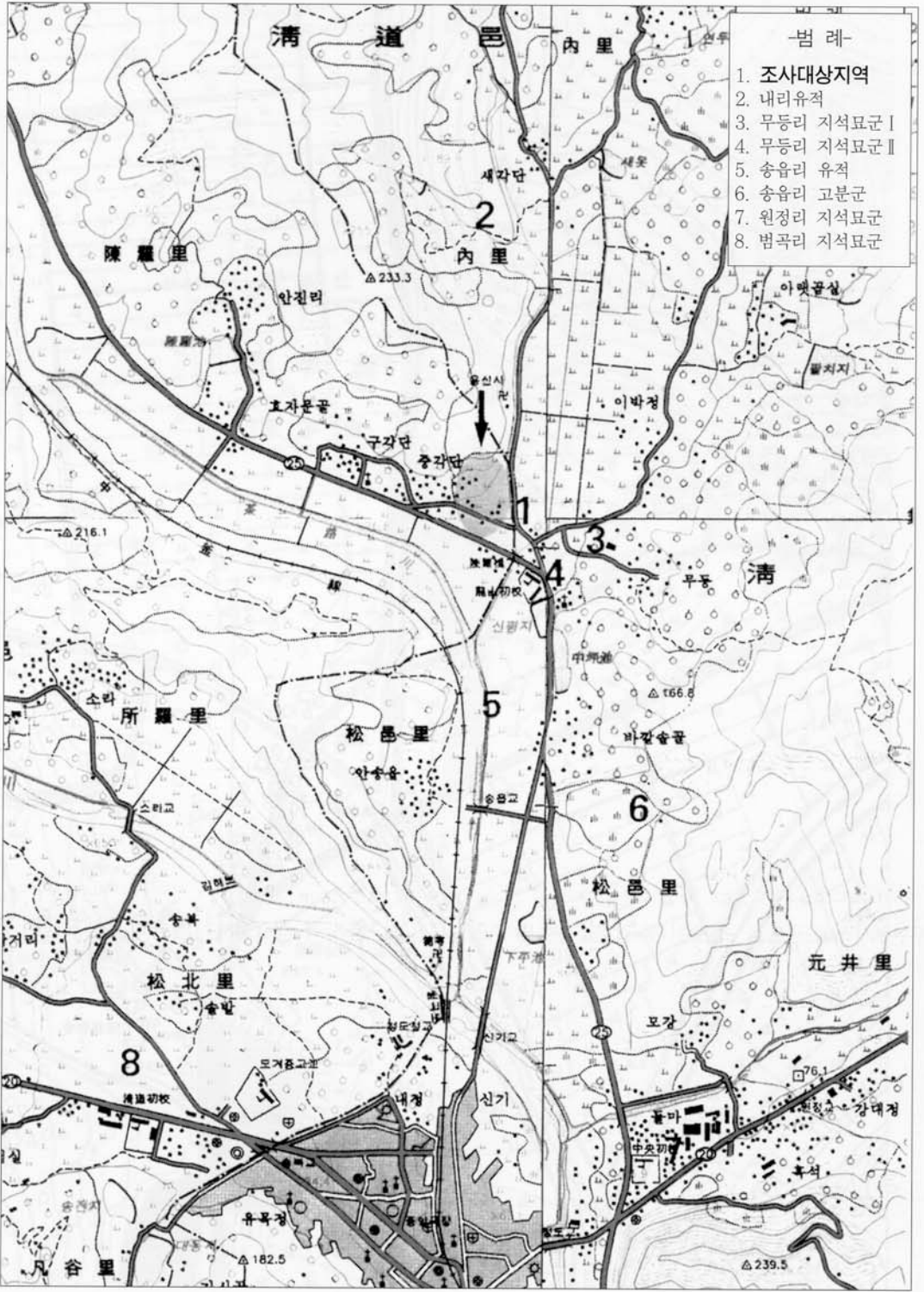
유적이 위치한 淸道郡은 慶尙北道 최남단에 해당하며,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는 좁은 형상이다. 청도군은 龍角山(해발 692.5m)과 龍塘山(해발 843.7m)에 의해 형성된 곱티재에 의해 동쪽의 山東地域과 서쪽의 山西地域으로 나뉘어진다. 산동지역은 1,000m가 넘는 운문산, 가지산 등의 험준한 지형을 이루는 산악지대이고, 산서지역은 대체로 1,000m 이하의 산지로 둘러싸인 평탄한 盆地로서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 河川은 산서지역을 흐르는 淸道川과 산동지역을 흐르는 東倉川으로 크게 이분된다. 청도천은 비슬산 남쪽으로 흘러내리면서 풍각천, 현리천, 오산천, 부곡천, 대곡천, 다로천 등의 지류를 이루고 있다. 이 하천의 주변에는 충적 평야가 형성되어 있고 낮은 구릉지대에는 청동기시대 지석묘나 삼국시대 분묘군이 분포하고 있다(淸道郡 1991).

유적이 위치한 곳은 산동과 산서지역을 가르는 북쪽의 용각산(해발 692.5m)에서 남쪽으로 청도천을 향해 뺀어 내린 구릉의 말단부에 해당된다. 남서쪽에는 청도천의 지류인 茶路川이 흐르고, 동쪽에는 용각산에서 흘러나오는 다로천의 지류들이 합류되는 협곡평야의 중앙부이다. 이 일대는 하천유수와 산지의 침식에 의하여 형성된 沖積層이 하천을 따라 넓게 분포되어 있다. 조사대상지역은 최근까지 과수원, 논밭 및 가축축사 등으로 이용되면서 부분적으로 교란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이 조사되거나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선사시대의 유적으로는 대부분 지석묘유적이 차지하고 있다. 지석묘유적으로는 본 유적과 다로천의 지류들인 소하천을 경계로 동쪽에 위치한 무등리지석묘군, 청도천의 지류인 원정천을 따라 열을 지우며 분포하는 원정리 지석묘군, 청도지역 최대의 군집상을 이루는 지석묘군으로 청도천과 같은 진행방향으로 2열로 줄지어 분포하는 범곡리지석묘군이 있다. 주거유적으로는 본 유적에서 남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송읍리유적이 있다. 삼국시대의 유적으로는 본 유적의 동남쪽 구릉상에 위치한 송읍리고분군과 원정리고분군이 있다.(도면 1 참조)

## Ⅲ. 조사내용

### 1. 유적현황



〈도면 1〉 조사대상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S=1:25,000)



〈도면 2〉 조사대상지역 지형도 및 발굴범위(S=1:5,000)

유적은 다로천의 지류들에 의하여 형성된 沖積地帶로서 청동기시대 문화층은 최근 경작층의 최고 100cm에서 최저 20cm 아래에서 확인되었다. 유적의 동쪽은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다로천의 지류인 덕암천의 계속적인 河床侵蝕의 영향으로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일부분 절개되었다. 유실된 부분은 북에서 남으로 'S' 자 모양으로 이어져 내려가고, N80~N100Grid 부근에서는 서쪽방향으로 20m 전후의 폭으로 절개되었다. 서쪽으로는 전답이 조성되어 있는데 유적내 유구의 분포양상과 지형 및 입지조건으로 보아 폭넓게 유적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 유구가 확인되는 문화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부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유적 전체적으로 古期 河道퇴적층인 자갈층의 상부에 약 50~80cm의 두께로 덮여있고, 곳에 따라 역시 청동기시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갈색사질점토층이 덮여 있기도 한다. 그 상부에 河成起源 퇴적물인 갈색사질토+자갈층이 5cm내외로 얇게 덮여있고, 그 상부에는 짙은 흑갈색점토층이 두텁게 덮여있다. N40Grid 북쪽과 S20Grid 남쪽으로는 古期 河道퇴적층인 자갈층이 확인되며, 수혈주거지의 잔존깊이도 남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깊어진다. 이는 청동기시대 문화층이 원래의 퇴적층 두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도 하며, 하상침식의 강도가 남서쪽으로 갈수록 약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할 것이다.

청동기시대의 유구들은 문화층의 전면에 걸쳐 확인되고 있고, 각 유구의 종류나 성격에 따라 그 분포양상도 차이가 나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주거영역은 유적 中上位의 중앙에 집중밀집되어 있고, 서로간의 중복이나 다소 거리가 떨어져 위치한 주거지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인 취락내의 주거영역은 어느 정도 정해진 듯 하다. 매장영역은 주거영역의 동쪽과 남쪽의 외곽, 하천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남북방향으로 분포한다. 또한 지표조사된 진라리지석묘군Ⅲ(嶺南大學校博物館 1993) 2기는 주거영역의 서쪽, 다로천과 그 지류에 의해 형성된 협곡평야가 시작되는 곳에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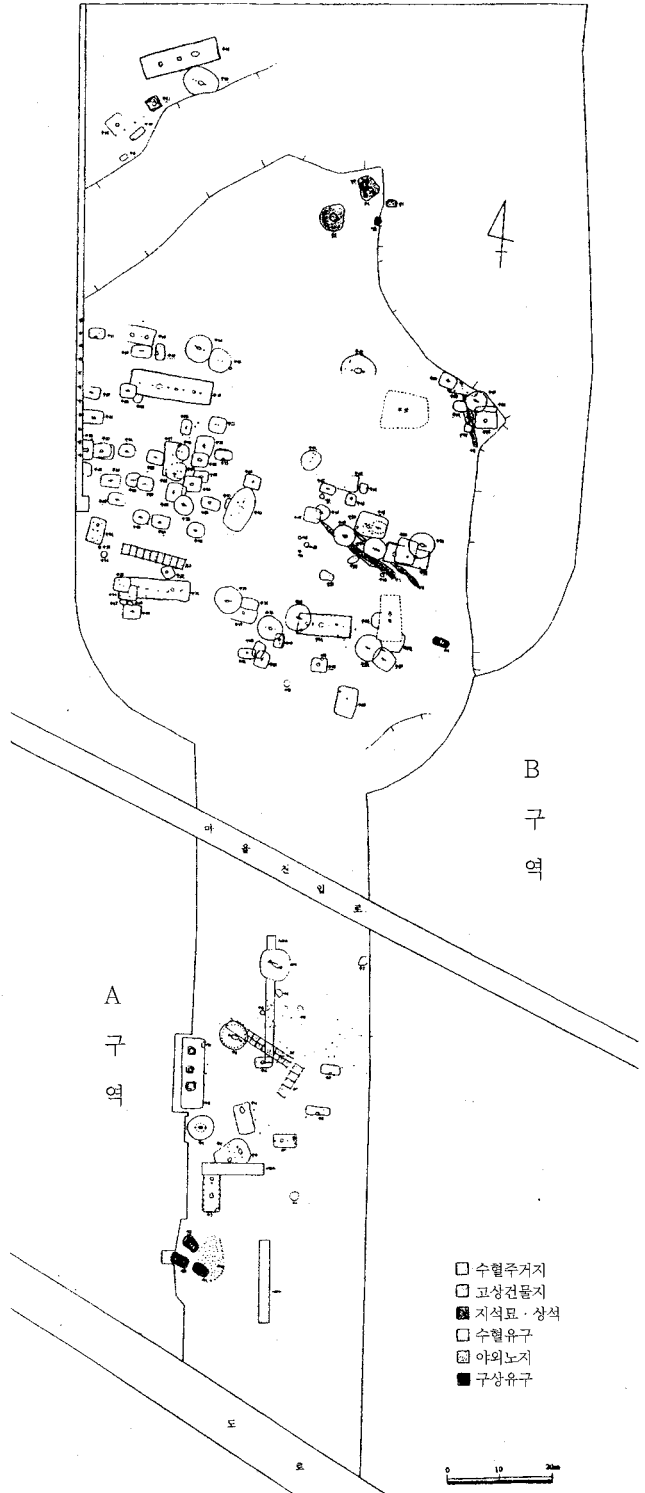
## 2. 유구

### 1) 수혈주거지

진라리유적에서 인간이 住居할 수 있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수혈주거지와 고상건물지가 있다. 이중 수혈주거지는 모두 93동으로서, 후대의 교란이나 유구간의 중복으로 인해 그 原形을 제대로 유지 못한 주거지도 일부 있지만, 대다수는 잔존형태로서 복원이 추정 가능한 상태이다. 유구들은 평면형태와 내부시설, 출토유물 등으로 볼 때 3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I 유형 : 총 7동으로 平面積이 50.3m<sup>2</sup>으로 다른 유형의 주거지에 비해 大形住居址이다. 세장방향에 복수의 爐址(3개:8·10·19·54호, 2개:16·71·86호)가 설치되었으며, 壁溝施設과 柱穴을 갖춘다. 또한 주축방향은 주거지 8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A구역에서는 남북방향인 반면에 B구역에서는 동서방향으로 확인되었다. 폐기의 원인은 대부분이 의지와 상관없는 '不意廢棄'로서 화재·홍수 등이 원인이다. 유물은 이중구연구순각목단사 선문·구순각목공열·이중구연단사 선문 등의 무문토기 다수와 삼각만 입촉, 함인·편인·환상석부, 장방형석도, 발화추, 고석, 원판형석기, 방추차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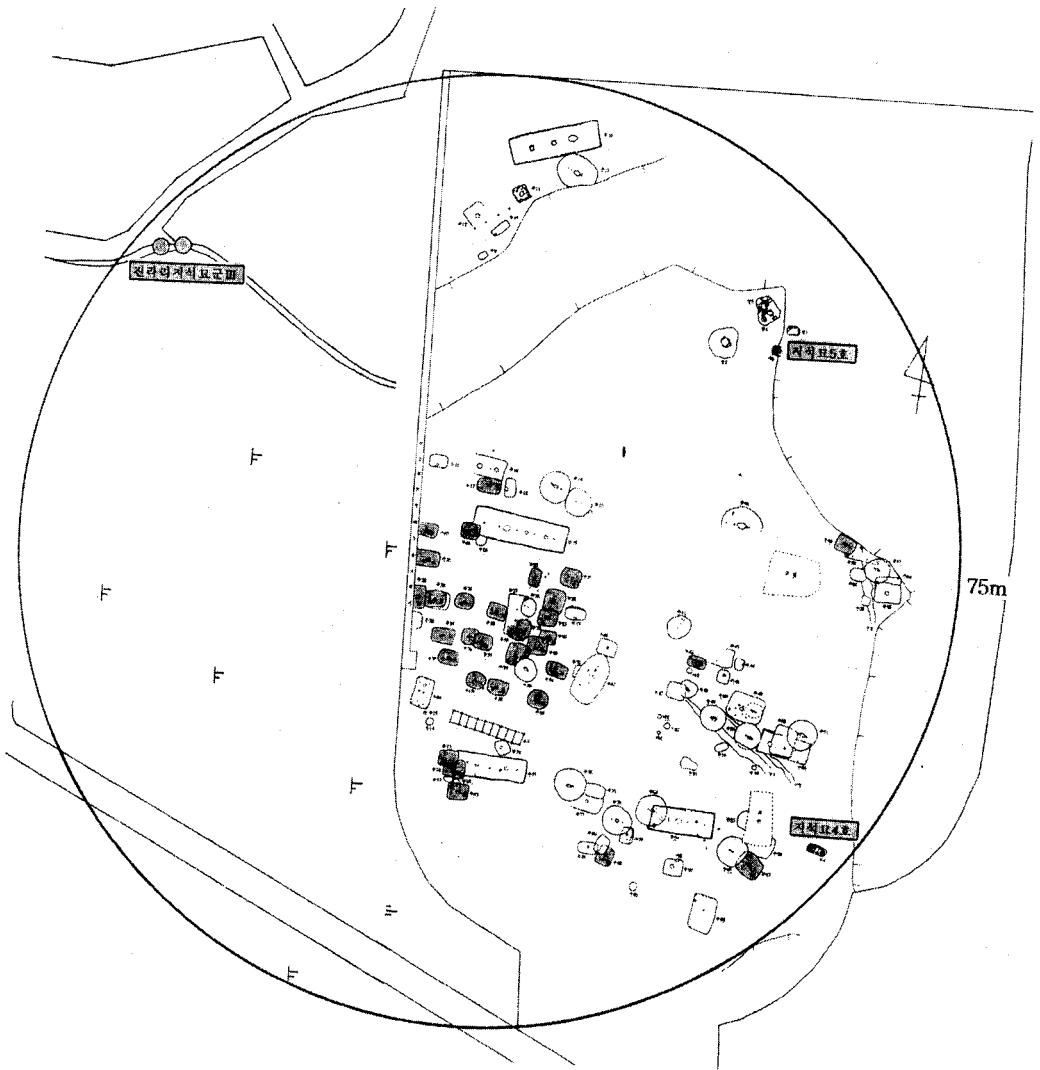
\* II 유형 : 총 10여동으로 平面積이 20.1m<sup>2</sup>으로 I 유형과 III 유형을 비교하면 中形住居址이다. 장방형에 하나의 爐址(한쪽으로 편재)가 설치되었으며, 벽구시설은 없고 주혈만 갖춘다. 또한 주축방향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이 서로 혼재하고 있다. 폐기의 원인은 대부분이 의지와 상관없는 '不意廢棄'로서 화재·홍수 등이 원인으로 I 유형과 같다. 주거지 3·4·7·50·64·77호 등이 이에 포함된다. 유물은 구순각목·공열 등의 무문토기 다



〈도면 3〉 청도 진라리유적 유구배치도

수와 단도마연토기, 합인·주상편인석부, 장방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 Ⅲ유형 : 총 54여동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전형적인 송국리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수혈 내부에 주혈이 만들어진 예는 없다. 수혈과 주혈이 2회 사용된 것이 일부 확인되어 주거지를 개축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I·Ⅱ유형과 비교하면 平面積이 小形이고, 내부에 爐址는 없고, 가운데에 豎穴이 배치되고 그 외부에 양주혈이 위치한 이른바 '檢丹里型'(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주거지(47동)와 가운데에 수혈이 없는 '東川洞型'(嶺南文化財研究院 2002b) 주거지(7동)이다. 유물은 발형·호형 등의 무문토기와 석촉, 석부, 석구, 부리형석기



〈도면 4〉 진라리유적(B구역) 주거지(Ⅲ유형)와 지석묘 공간배치도

등이 출토되었지만 I·II 유형에 비해 그 수량이 매우 적다. III 유형의 주거지는 평면형태에 따라 말각(장)방형과 원형, 2가지로 세분된다. III-1 유형은 말각(장)방형주거지로 총 32여동이 다. 가운데수혈이 원형주거지에 비해 부정형에 가깝고 깊이는 얇고 작다. 주축방향은 동서방향과 남북방향이 혼재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동서방향이다. 또한 양 주혈끼리 연결하는 일직선은 장축방향과 동일하다. 검단리형 주거지는 17·18·20·22·24·25·29·30·31·32·34·35호 등이고 동천동형 주거지는 21·73호 등이 이에 포함된다. III-2 유형은 원형주거지로 총 22여동으로 가운데수혈이 말각(장)방형주거지에 비해 타원형에 가깝고 깊이는 깊고 크다. 양 주혈끼리 연결하는 일직선은 북서-남동방향으로 III-1 유형과 동일하다. 폐기의 원인은 대부분이 의도적인 '自然廢棄'이다. 검단리형 주거지는 1·5·6·13·14·38·40·46·48호 등이고 동천동형 주거지는 15·26·41호 등이 이에 포함된다.

각 유형간의 先後關係는 주거지의 규모와 형태, 그리고 중복관계, 출토유물 등으로 보아 I→II→III-1→III-2類型으로 취락의 구조적 변화가 보여진다<sup>1)</sup>. III類型부터 주거지는 小型化하며, 規格化 된다. 또한 III類型的 주거지들은 유적 내 공간배치에서 차이점이 보인다. 즉 말각(장)방형주거지(III-1類型)는 본 유적지 N20W20Grid 주변에 주거지가 집중화현상이 보여지고, 이에 반해서 III-2類型은 집중화가 떨어진다.(도면 4 참조)

이 밖에 주혈은 없고 다만 가운데 부분에 노지만 있는 방형주거지가 9여동, 송국리형 주거지로 판단되는 타원형주거지 1동을 비롯하여 파괴가 심한 주거지 약 십여동이 있다.

## 2) 고상건물지

고상건물지는 모두 3동이 조사되었다. 고상건물지 1·2호는 원형주거지 5호 부근에서 고상건물지 3호는 방형주거지 72호 부근에 서로 근접하여 조성되었고 그러면서 서로간에 중복관계를 보인다. 2호는 원형주거지와 중복되어 있는데 그 선후관계는 파악할 수 없었고, 3호는 방형주거지(주혈은 없고, 가운데 노지만 있음) 보다 후대에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규모 및 주축방향에 있어서 서로 차이를 보이는데 1호의 면적은 15.3㎡이고, 2호는 35.4㎡, 3호는 28.6㎡이다. 그 용도는 동시기의 주거유적인 수혈주거지의 夏季사용불가에 따른 주거용 또는 창고로 판단된다.

1) 이러한 취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하여 안재호(安在皓 1996)는 가족 구성의 변화 과정이며, 동시에 취락공동체의 성장과정으로 인식하고 家族共同體(본 유적의 주거지 I類型)에서 가족의 형태가 분화하여 世帶共同體(본 유적의 주거지 II類型)를 이루고, 다시 세대공동체는 분해되어 혈연적 구조는 없어지고 1동의 주거지로 존속하게 됨으로 가족공동체의 가장의 권한은 이 시점부터 취락의 특정개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았다.



〈표 1〉 고상건물지 현황표

(단위 : cm)

| 호수 | 평면형태 | 장축방향    | 칸수   | 규모        | 기둥구멍폭 | 기둥폭   | 기둥깊이  | 비고 |
|----|------|---------|------|-----------|-------|-------|-------|----|
| 1  | 세장방형 | N-30°-E | 4×1  | 708×217   | 14~23 | 9~14  | 5~19  |    |
| 2  | 세장방형 | N-57°-W | 11×2 | 1,460×243 | 10~24 | 7~18  | 5~32  |    |
| 3  | 세장방형 | N-76°-W | 9×1  | 1,251×229 | 26~38 | 15~18 | 10~21 |    |

### 3) 지석묘

지석묘가 5기, 지석묘 상석 4기 등이 조사되었으며, 유물은 매장시설 안에서 출토된 丹塗磨研土器 2점, 石劍 3점, 石鏃 11점, 石鑿 1점, 飾玉 1점과 매장시설 주변에서 출토된 각종 土器類 및 石器類가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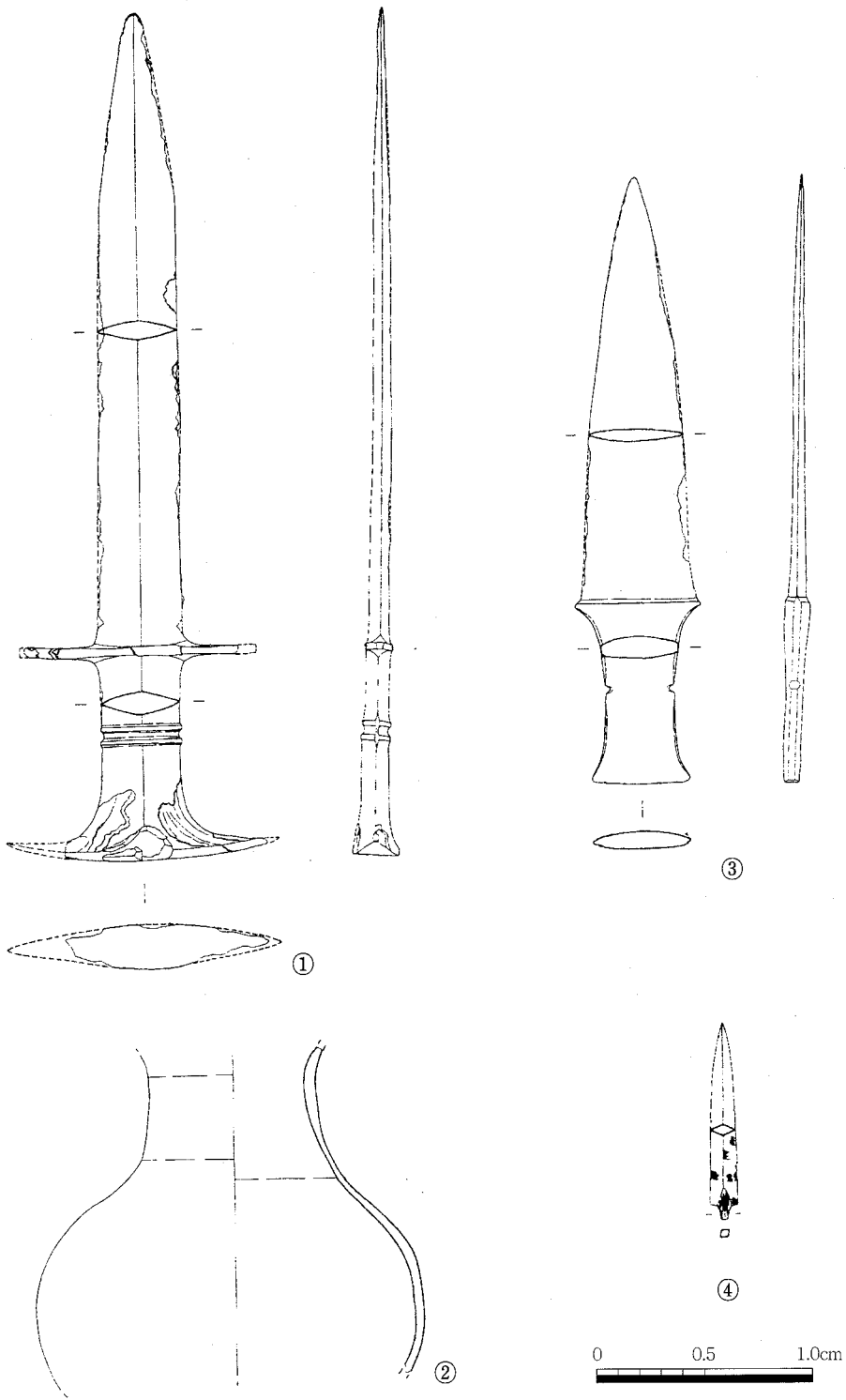
진라리지석묘군을 비롯하여 주변에 분포하는 무등리지석묘군, 원정리지석묘군의 입지 지형상 공통점은 모두 산기슭하의 평지이며, 청도천의 지류들에 의하여 형성된 沖積地帶에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진라리 지석묘군의 근거리에 동시기의 주거지가 발견된 사실을 유추해 보면, 그들의 생활 활동지역과 밀접한 곳에 지석묘를 축조하였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진라리유적의 경우 유적지내 중앙부에 주거영역을 두고 북쪽은 산지가 감싸고 있고, 발굴조사된 5기의 지석묘가 주거영역의 동쪽과 남쪽의 외곽, 하천쪽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남북 방향으로 분포한다. 分布數에 따라서는 진라리지석묘군 7기, 무등리지석묘군 9기, 원정리지석묘군 10기, 범곡리지석묘군 40기로 江 하류로 갈수록 분포 빈도수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말해서 청도천의 流域에 분포된 지석묘군<sup>2)</sup> 중에서 최대의 군집상을 보이는 범곡리지석묘군을 중심으로 상류나 북쪽으로 가면서 희박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석묘들이 江을 따라 전파되었음을 말해 주며, 각 축조집단간의 규모나 세력의 우열 또는 축조기간의 차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sup>3)</sup>.

이러한 입지 및 분포상을 통해 볼 때, 진라리지석묘를 축조한 집단은 청도천의 지류인 다로천 유역일대를 장악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본 유적지 일대를 생활영역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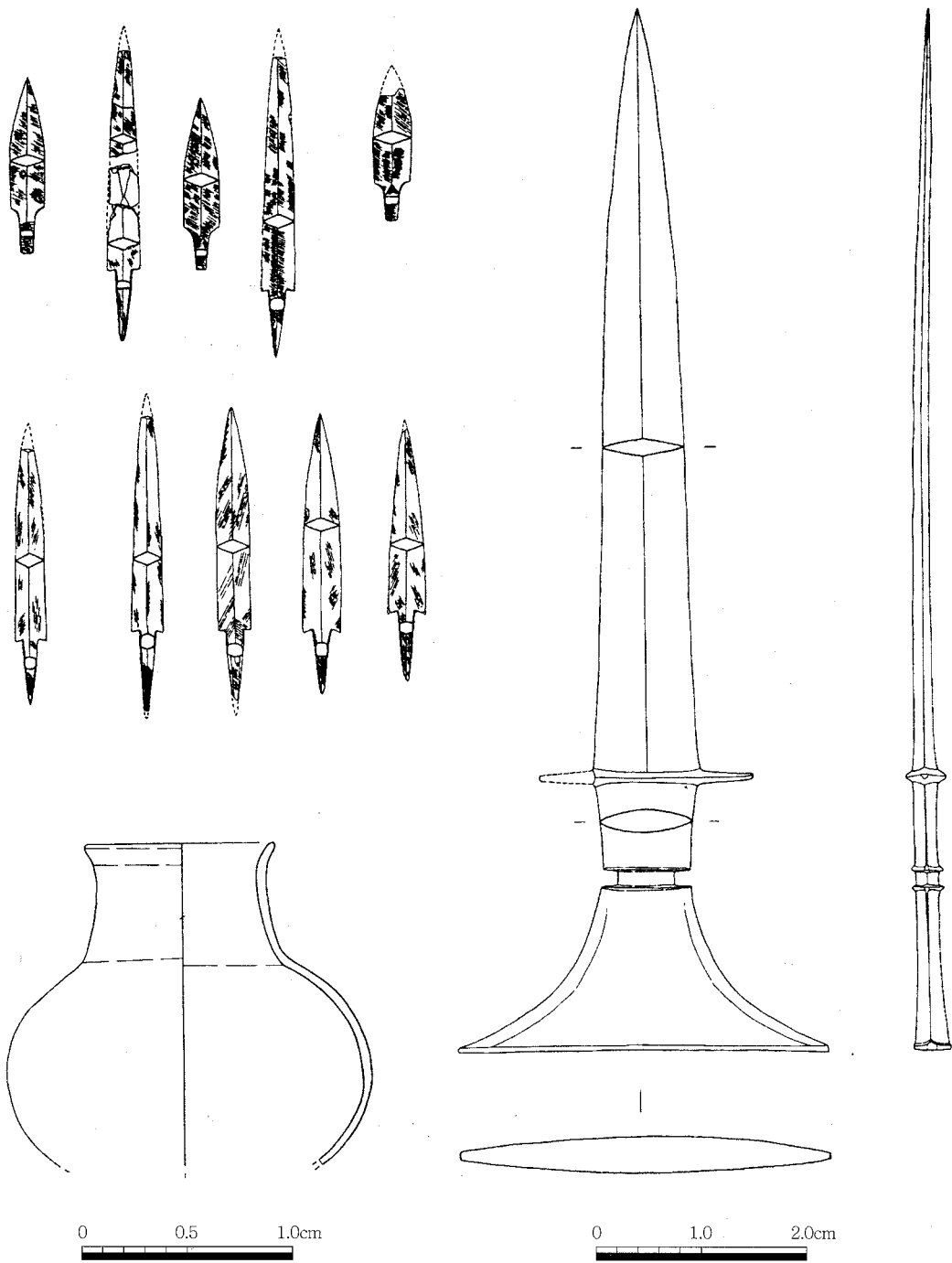
지석묘의 기본구조는 위에서부터 상석, 부석, 매장시설로 구성된다. 上石은 모두 부석시설 위에 설치되었는데, 3·4·5호는 완전 결실되었고, 1·2호만이 原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5호묘 주변의 구덩이에 매몰되어 확인된 4기의 상석은 하상침식과 후대의 개간 등에 의하여

2) 청도천은 비슬산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려서 각북면, 풍각면, 이서면, 각남면, 화양읍, 청도읍을 돌아 흐르는 하천으로 그 流域에는 모두 36개 군집에 166여기의 지석묘가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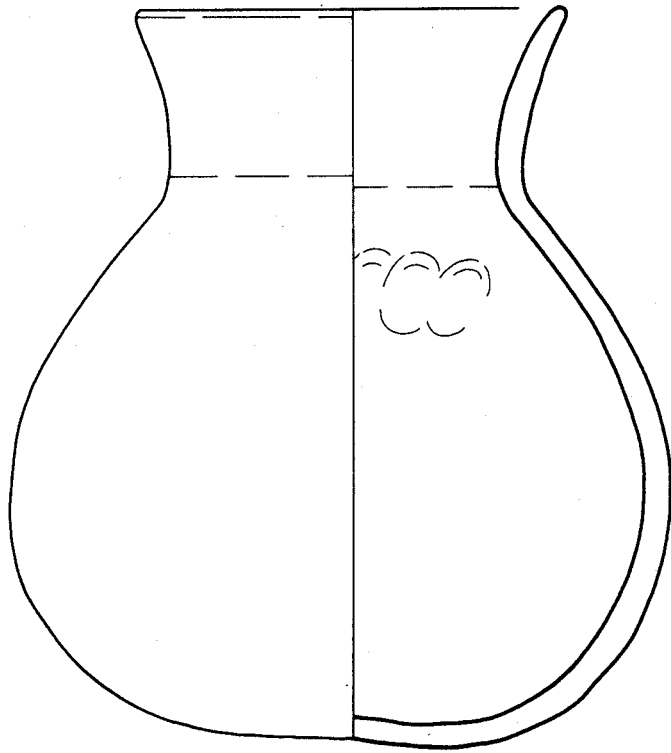
3) 진라리지석묘 5기, 화리지석묘 2기 이외에는 지표조사만 이루어졌고,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그 문화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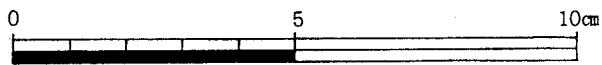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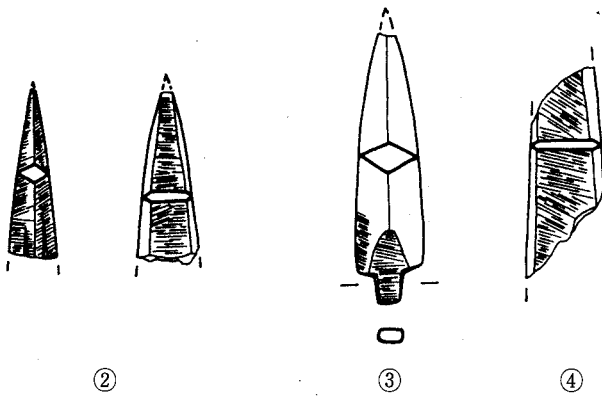
〈도면 5〉 지석묘 1호(①), 2호(②), 4호(③·④) 출토유물



〈도면 6〉 지석묘 3호 출토유물



①



〈도면 7〉 주거지 64호(①), 71호(②), 93호(③), 10호(④) 출토유물

훼손된 것으로 주변에서 매장시설이 확인되지 않았고, 입지상<sup>4)</sup>으로 볼 때 墓標石의 기능이나 集團의 公共集會나 儀式을 행하는 祭壇의 기능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李榮文 1993). 석질은 상석 1호만이 혼펠스이고 나머지는 모두 안산암이다. 장축방향은 북서-남동방향으로 유적내의 동쪽에 남북방향으로 흐르는 덕암천과는 직교하며, 도로천의 流路 방향과는 평행하다. 敷石은 매장시설의 위와 주변으로 대소의 할석과 역석을 깔고, 그 가장자리는 비교적 큰 할석을 정연하게 배치함으로써 매장시설을 보호하고 묘역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자 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후대의 개간이나 경작 등으로 파괴, 교란되어 그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다. 埋葬施設은 모두 지하식의 석곽형으로 동일하다. 장축방향은 상석과 마찬가지로 모두 북서-남동방향이다. 규모는 成人의 伸展葬이 충분히 가능한 길이 200cm 내외<sup>5)</sup>이다. 개석은 1·2·4호묘에서 확인되었는데 부석 아래에 석질이 안산암인 판석으로 2~3단 정도 덮었다. 축조순서는 먼저 묘광을 말각장방향으로 파고 바닥에 屍床石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시상석 사이를 포함하여 묘광 바닥의 전면에 역석을 깔 후, 長壁과 短壁이 서로 맞물려서 축

〈표 2〉 지석묘 현황표

( )안은 현존치수

| 호수 | 상 석 |     |        |     |     |       | 매 장 시 설 |       |        |    |    |      |       |       | 비고    |    |                    |
|----|-----|-----|--------|-----|-----|-------|---------|-------|--------|----|----|------|-------|-------|-------|----|--------------------|
|    | 현존  | 형태  | 규모(cm) |     |     | 무게(t) | 축조형태    | 장축방향  | 규모(cm) |    |    | 벽면축조 |       | 바닥    |       | 개석 | 출토유물               |
|    |     |     | 길이     | 너비  | 두께  |       |         |       | 길이     | 너비 | 깊이 | 위치   | 장벽    |       |       |    |                    |
| 1  | ○   | 입체석 | 180    | 140 | 118 | 8     | 석곽      | 북서-남동 | 155    | 65 | 70 | 지하   | 천, 할석 | 천, 할석 | 할, 역석 | 2단 | 석검1                |
| 2  | ○   | 편평석 | 230    | 127 | 50  | 3     | 석곽      | 북서-남동 | 215    | 50 | 65 | 지하   | 천, 할석 | 천, 할석 | 판석    | 3단 | 홍도1<br>석옥1         |
| 3  | ×   | ·   | ·      | ·   | ·   | ·     | 석곽      | 북서-남동 | 215    | 70 | 40 | 지하   | 천, 할석 | 천, 할석 | 판, 역석 | ·  | 홍도1<br>석검1<br>석촉10 |
| 4  | ×   | ·   | ·      | ·   | ·   | ·     | 석곽      | 북서-남동 | 235    | 57 | 60 | 지하   | 할, 판석 | 할, 판석 | 역석    | 2단 | 석검1<br>석촉1<br>석착1  |
| 5  | ×   | ·   | ·      | ·   | ·   | ·     | 석곽      | 북서-남동 | (87)   | 72 | 15 | 지하   | 할석    | 할석    | 판, 역석 | ·  | ·                  |

4) 진라리유적내에서 住居址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밀집분포하고 있으나 上石 4기가 확인된 유적의 북동쪽 평탄한 부분에서는 주거지가 확인되지 않고 空地로 남아있다.

5) 하상침식으로 거의 절개된 5호묘의 경우 너비가 72cm로 5기중 가장 넓어 그 길이도 200cm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된다.

조되었다. 벽석축조는 대부분 천석과 할석을 이용하여 중·횡평적을 하였으나 주로 종평적을 하였으며, 4호묘의 경우만 판석을 이용해 입·외수적을 혼용하고 그 위에 천석과 할석으로 종평적을 하여 차이를 보인다. 묘광과 벽석 사이에는 벽석을 쌓아 올리면서 동시에 5~10cm 정도의 역석 등을 채웠다. 바닥은 시상석이 모두 마련되었는데 시상석의 종류는 판석과 역석, 할석이 있다. 또한 바닥의 내벽을 따라 5~10cm의 역석을 돌린 것과 최하단석을 고인 경우도 확인된다. 피장자의 두향은 출토된 유물 중에서 마제석검이 석곽의 북장벽 중앙에 붙어 석곽의 장축방향으로 놓여져 있었는데 柄部の 위치로 볼 때 피장자의 두향은 동쪽(4호묘), 서쪽(1·3호묘)인 것 같다. 또한 3호묘와 같은 위치에 단도마연토기가 부장된 2호묘의 경우 두향이 서쪽인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진라리지석묘의 형식과 구조적 특징은 소위 蓋石式 支石墓<sup>67)</sup>로 支石이 없고, 上石 주위에 敷石을 깔아 墓域을 조성하고 埋葬施設(下部構造)은 敷石 설치면 보다 아래인 지하에 천석이나 할석을 사용하여 축조한 점이다.

진라리지석묘와 주거집단과의 관계는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도마연토기와 석축곽의 비교에서 적어도 장방형 주거집단(Ⅱ類型)이 폐기된 이후인 송국리형 주거지(Ⅲ類型)가 조성될 시점이나 그 이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송국리형 주거지(Ⅲ類型)의 공간배치로 보아 원형주거지(Ⅲ-2類型) 보다 말각(장)방형주거지(Ⅲ-1類型)를 축조한 집단과 보다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4) 수혈유구

유적내 주거지 외에 크고 작은 규모를 가진 수혈 23기가 조사되었다. 이 수혈들은 대부분 주거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면형태에 따라 장방형과 부정형 및 타원형, 원형으로 구분된다. 장방형은 총 8기로 주축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은 남장벽(2·3·11·13호)·남북방향인 것은 서장벽(12호)의 가운데 부분 바닥에서 원형수혈이 확인된다. 수혈 내부에서 석기들이 다수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작업공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바닥 중앙에 원형 수혈이 조성된 4호와 내부 무시설인 9·10호가 있다.

6) 종래에 변형고인돌, 남방식지석묘, 무지석식지석묘로 불리던 형식으로 하인수(河仁秀 1992)는 한반도 支石墓를 크게 축조방법과 구조에 따라 北方式, 南方式, 蓋石式 支石墓로 三分하였다. 또한 蓋石式 支石墓를 매장시설의 축조면의 위치에 따라 『地下形』과 『地上形』 2종류로 大別하고 이들 각 형식은 세부 구조의 특징에 따라 다시 몇 개의 類型으로 세분하였다.

7) 이상길(이상길 2001)은 개석식은 상석이 매장시설의 뚜껑 역할을 한다는 전제에서 붙여진 이름인데, 일반적으로 개석식으로 명명되는 지석묘에 별도로 개석이 있는 예가 많다. 단지 지석의 유무만으로 남방식과 개석식을 구분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후대의 변형(支石의 이동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피상적인 분류이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청동기시대 분묘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타원형수혈과 원형수혈, 부정형 수혈에서는 목단과 소토가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타원형수혈에서 출토된 부리형 석기와 노지로 보아서 작업장으로 추정된다. 또한 평면형태가 타원형인 수혈 19호와 수혈 21·22호는 다른 성격의 수혈일 가능성이 보인다.

#### 5) 야외노지

야외노지는 모두 5기가 조사되었다. 1호는 세장방형 주거지인 8호의 동북쪽 벽면과 중복되어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101cm, 너비 71cm, 깊이 15cm이다. 2호는 말각장방형 주거지인 42호의 남쪽에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89cm, 너비 86cm, 깊이 2cm이다. 3·4호는 원형주거지 48호의 서쪽부분에 남북으로 각각 조성되었는데 거의 바닥만 남은 상태이다. 3호는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63cm, 너비 61cm이다. 4호는 평면형태는 타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60cm, 너비 57cm이다. 5호는 가운데 노지만 있는 주거지 92호의 동북쪽 벽면과 중복되어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원형이고 규모는 길이 60cm, 너비 57cm, 깊이 4cm이다.

#### 6) 구상유구

구상유구는 모두 3기가 조사되었다. 1·2호는 유적지내 동쪽에 위치하는데 원형주거지들(주거지 45·85호 등)을 파괴하고 북서남동방향으로 조성되어있다. 1호의 규모는 잔존길이 17.6cm, 너비 40~160cm, 잔존깊이는 23cm 정도이다. 2호의 규모는 잔존길이 15.2cm, 너비 40~90cm, 잔존깊이는 60cm 정도이다. 3호는 유적지내 북동쪽에 위치하는데 방형주거지 보다는 후대이지만 원형주거지 보다는 선대로 남북방향으로 조성되어있다. 규모는 잔존길이 9.6cm, 너비 80~160cm, 잔존깊이는 15cm 정도이다.

### IV. 맺음말

청도 진라리유적은 소하천들이 합류하는 협곡평야의 중앙부에 조성된 청동기시대의 대규모 마을유적으로 조사된 유구는 총 136기이다. 여기서는 이들 조사결과에 대한 그 성과와 의의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봄으로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청도 진라리유적은 청도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청동기시대 대규모 취락유적으로서 대구·경산의 영남내륙지역과 영남 남부지역과의 문화상의 연관성이나 연속성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 지역의 선사시대 문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이번에 조사된 주거지에서는 규모와 평면형태, 그리고 중복관계와 유물에 따른 취락의 구조적 변화가 관찰되며, 기존에 다른 유적에서 조사된 주거지와 종합적으로 상호 비교·분석을 한다면 청동기시대 취락의 구조에 따른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취락공동체의 성장과정을 연구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청도천 주변에 분포하는 지석묘가 처음으로 조사되어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홍도·마제석검·석촉·식옥 등 부장유물이 풍부하여 당시 이 지역 지석묘 조성집단의 매장문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규모의 지석묘군인 진라리유적에서 대형의 마제석검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의 이 지역은 인접해 있는 대규모 지석묘군인 범곡리지석묘군을 중심으로 보다 발달된 청동기시대의 문화가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넷째, 취락구성에 있어 매장시설로서의 지석묘가 유적내에서 주거영역의 외곽지역에 일정한 범위내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주변에 산재해 있는 지석묘군 분포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진라리지석묘를 조성한 집단은 청도천의 지류인 다로천 유역일대를 장악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본 유적지 일대를 생활영역으로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다섯째, 조사결과로 미루어 보아 주거지는 무문토기시대 전기에서 중기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하면서 변천해 왔고, 지석묘는 구조와 출토유물, 주거지와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선승국리형 문화시기인 중기전반을 전후한 시기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 참 고 문 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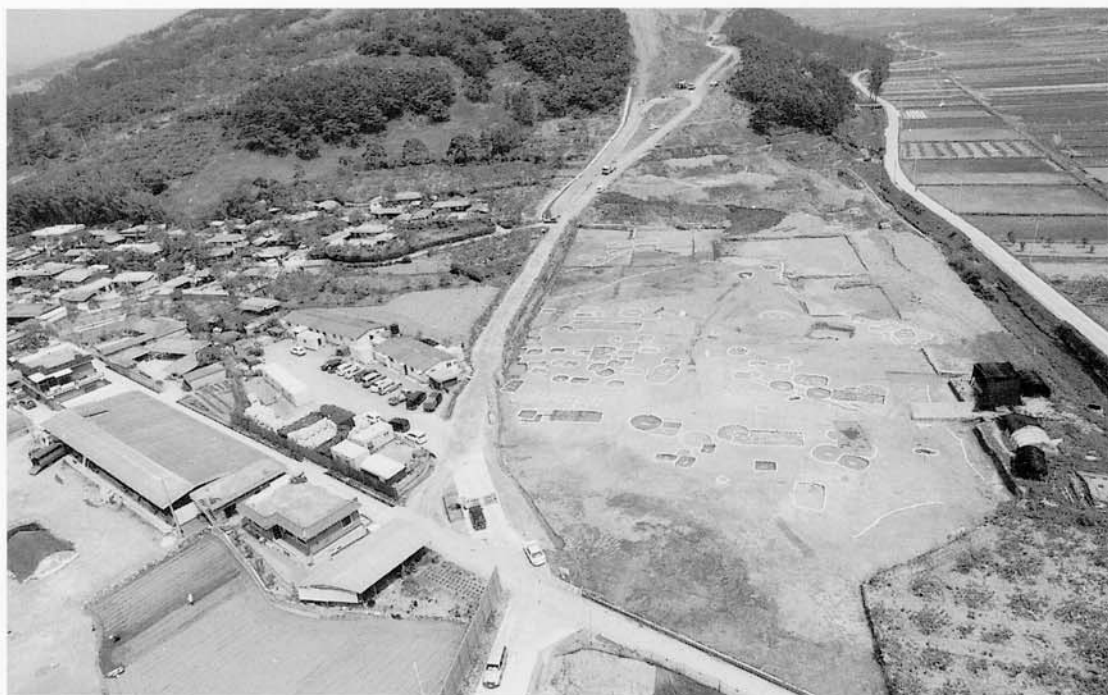
- 金英夏, 1980, 「清道華洞의 先史遺蹟」, 『歷史教育論集』1
- 金鍾徹, 1987, 「慶尙北道清道郡禮田洞出土의 遼寧式銅劍」, 『東アジアの考古と歴史』上, 岡崎敬先生退官紀念論集
- 金相冕, 1990, 「清道 沙村里遺蹟 發掘調査報告」, 『考古學誌』第2輯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4, 『清道 梧津里 岩蔭 遺蹟』
- 慶北大學校博物館, 1994, 『清道 大川里·尊池里 遺蹟』
- 大田保健專門大學校博物館, 1994, 『清道 尊池里 C地區 古墳群』
- 大邱教育大學校博物館, 1994, 『清道 尊池里 D地區 新羅墳墓群 發掘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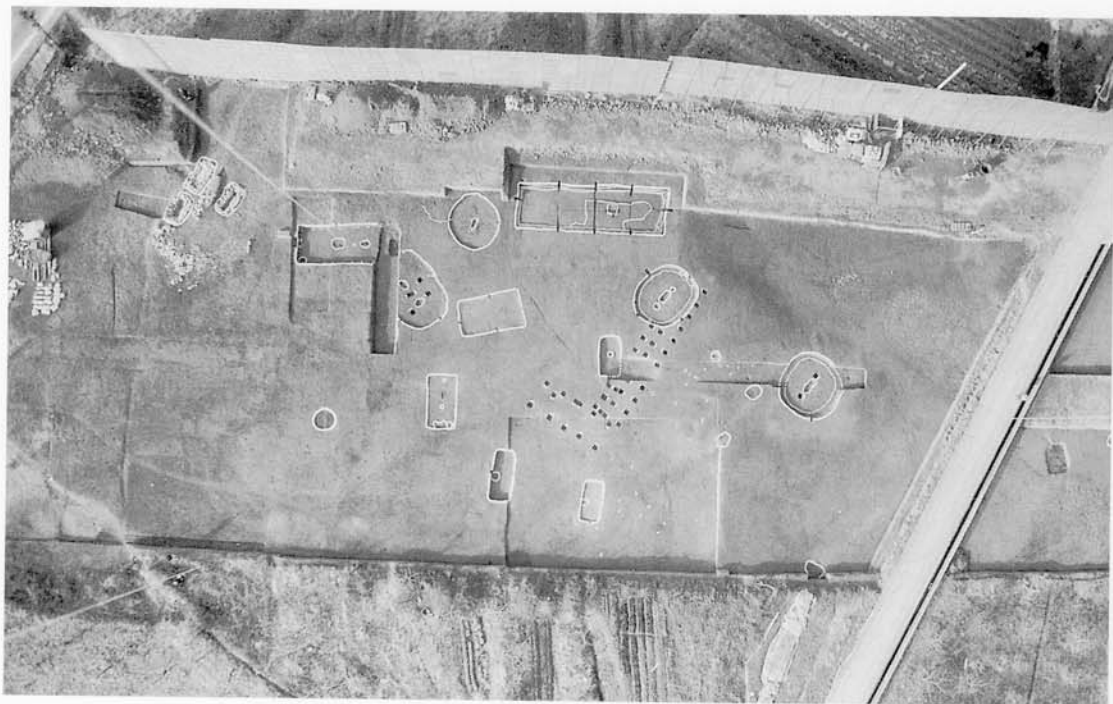
- 慶南大學校博物館, 1994, 『清道 尊池里 甕器가마터』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釜山間 高速道路 建設區間(第4·5工區) 文化遺蹟發掘調查 中間結果書」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a, 『清道 元井里古墳群』
- 嶺南大學校博物館, 1993, 『釜山-大邱間 高速道路 大邱·慶北圈 文化遺蹟地表調查報告書』
- 清道郡, 1991 『清道郡誌』
- 釜山大學校博物館, 1995, 『蔚山 檢丹리마을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b, 『大邱 東川洞聚落遺蹟』
- 安在皓, 1991, 「南韓 前期無文土器의 編年-嶺南地方의 資料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碩士學位論文
- 安在皓, 1996, 「無文土器聚落의 變遷」, 『碩晤尹容鎭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 李榮文, 1993, 「全南地方 支石墓 社會의 研究」, 韓國教員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河仁秀, 1989, 「嶺南地方 丹塗磨研土器에 대한 新考察-型式分類와 編年을 中心으로-」, 釜山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河仁秀, 1992, 「嶺南地域 支石墓의 型式과 構造」, 『伽倻考古學論叢1』,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河仁秀, 2000, 「南江流域 無文土器時代의 墓制」,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고대 한일문화교류의 제양상』, 경상남도·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 이상길, 2001, 「埋葬과 儀禮에 관한 새로운 試圖-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청동기시대 연구의 새로운 성과와 과제』, 충남대학교박물관



〈사진 1〉 유적 원경(남→북)



〈사진 2〉 유적 근경(남→북)



〈사진 3〉 A구역 전경(항공)



〈사진 4〉 B구역 전경(항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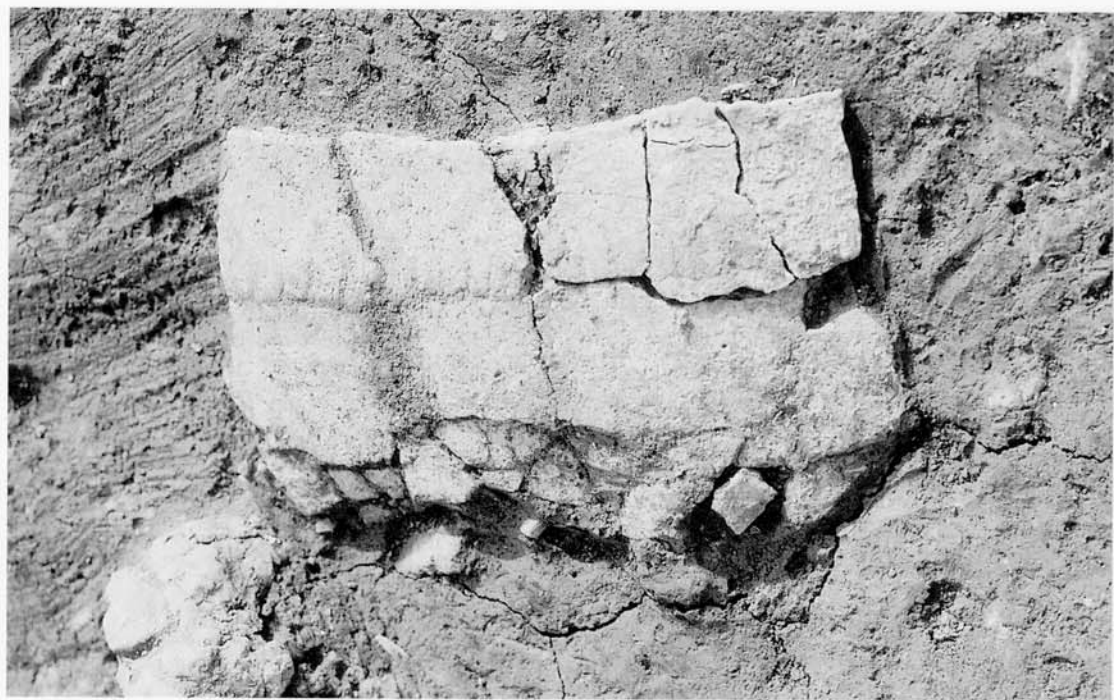
〈사진 5〉 주거지 8호 전경(남→북)



〈사진 6〉 주거지 8호 유물 출토상태



〈사진 7〉 주거지 19호 전경(동→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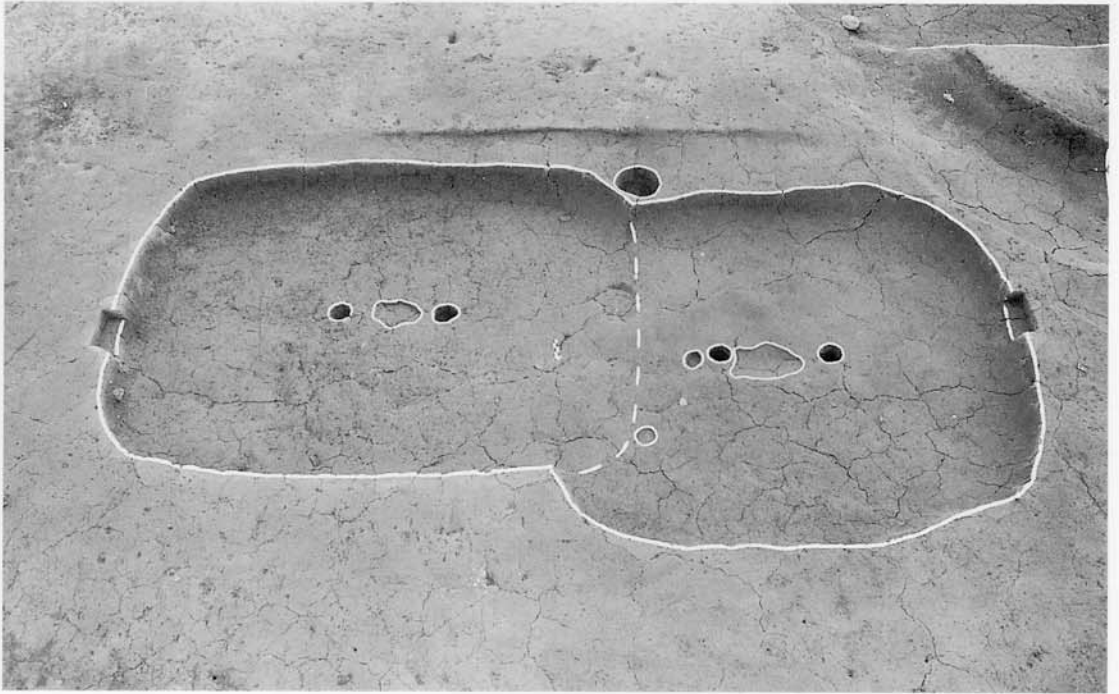
〈사진 8〉 주거지 71호 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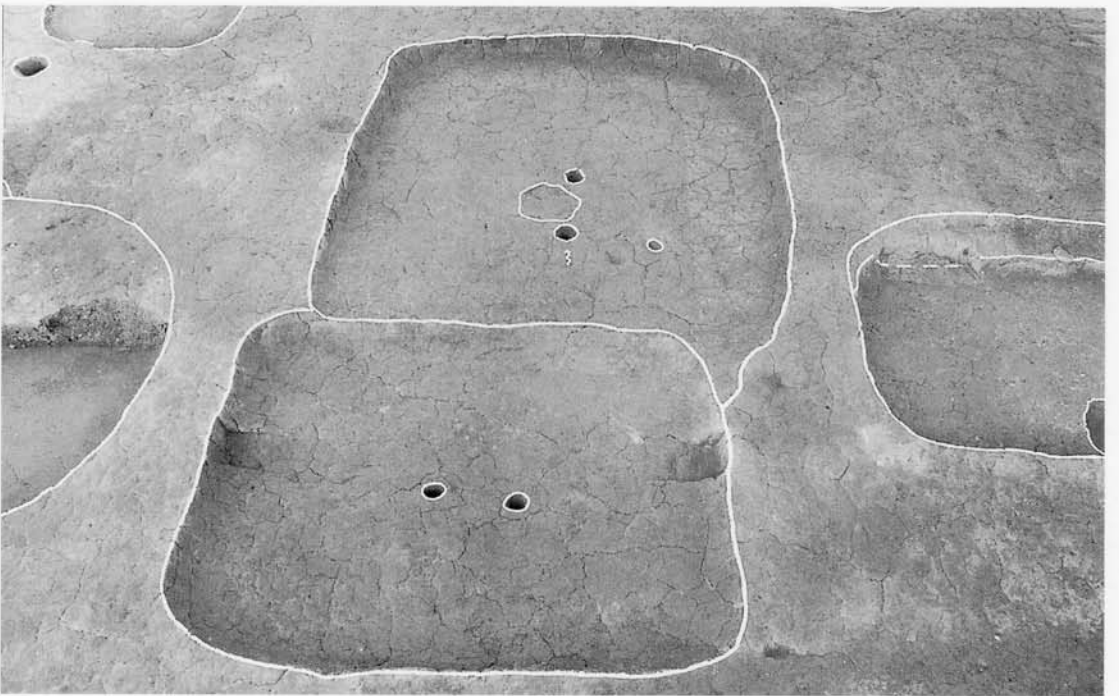
〈사진 9〉 주거지 3호 전경(북→남)



〈사진 10〉 주거지 64호 전경(동→서)



〈사진 11〉 주거지 36·37호 전경(북→남)



〈사진 12〉 주거지 22·23호 전경(남→북)



〈사진 13〉 주거지 6호 전경(북→남)



〈사진 14〉 주거지 6호 유물 출토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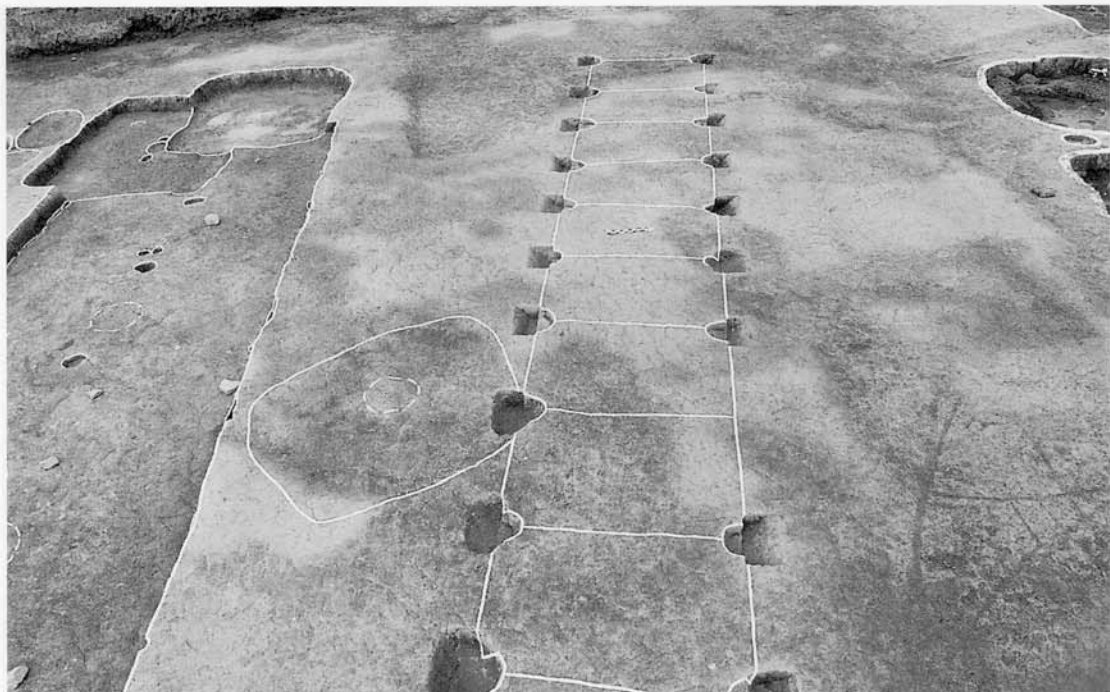




〈사진 15〉 지석묘 1·2·3호 전경(항공)



〈사진 16〉 지석묘 1·2·3호 상석 및 개석 제거후 전경(동서)



〈사진 17〉 고상건물지 3호 전경(동→서)



〈사진 18〉 수혈 3호 전경 (남→북)